



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,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십니다.
하나님께서서는 조셉 스미스를 아셨습니다.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.
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아십니다.

데일 지 렌랜드 장로, 십이사도 정원회
"회복을 통해 여러분이 받게 되는 축복", 『리아호나』, 2020년 2월호, 52쪽에서 인용함.